

함석헌 선생과 21세기 한국교회

이 은 선 (교수, 세종대학교)

1. 시작하는 말: 국가, 경제, 성(性)의 위기 앞에서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앞으로 인류의 삶이 ‘민족’(국가)와 ‘소유권’(경제), ‘가정’(性)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는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¹⁾ 그의 예언자적 통찰대로 오늘 인류사회와 한국적 삶, 거기서의 교회의 영성도 이 세 가지 물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의 각축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그 열강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의 민족의식의 전개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임을 잘 보고 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이다. 오늘날 네그리(A. Negri)나 하트(M. Hardt) 등의 서구 국가주의(제국주의) 비판가들도 이 문제를 ‘소유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써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서구 근대주의가 그 공화/민주주의적 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돈과 자본에 좌우되게 하는 ‘소유공화국’을 몰고 왔는지 성찰하였다. 그들은 그 대안으로서

1) 함석헌,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노명식, 『함석헌 다시 읽기』, 책과함께, 2011, 622쪽.

무산자의 ‘몸’과 ‘신체’의 저항성과 생산성에 의지하는 유물론적 다중 공동체(commonwealth)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²⁾

이 민족(인종, 국가 등)과 소유(자본, 가난, 노동)의 물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주제가 가정(가족, 사랑, 성)의 문제이다. 인간의 인간됨이 몸이 서로 모여 사는 일을 통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모여 삶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성과 결혼 등을 통한 가정의 일이라면 누구라도 가정과 가족적 삶을 용이하게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늘의 소유공화국에서는 빈부의 갈등이 심하고, 가난으로 여러 종류의 빈자(貧者, poor)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통적 성 개념의 고착으로 여러 대안적 가족과 가정의 삶은 쉽게 용납되지 않아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점점 더 가속화되어가는 가정과 가족적 삶의 해체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인간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거기서부터 후세대의 양육과 교육, 장애인과 노인세대의 돌봄 등 일파만파로 문제가 커져간다.

나는 오늘 인류가 맞이한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타개책을 탐색하는 일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네그리나 하트 등의 ‘신체론적(유물론적) 공동체주의자’들과는 달리 다시 ‘정신적이고(종교적, 영적) 개체적인 인격주의’의 길이 여전히 의미 있고, 그것이 더 궁극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물론 그들도 인간 존엄의 보편적인 근거인 신체의 생산성과 힘을 우리 시대의 ‘내재적인 초월성’으로 명명하기는 한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내재적 초월성을 대비시키고자 하는데, 함석헌 선생의 씨울 사상도 이와 유사한 길이라고 이해한다. 즉 그의 씨울 사상은 인류 모두를 그 국적과 인종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common) 모두 존엄한 존재로 볼 수 있는 ‘정신적’ 근거(性, 씨울)를 찾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그 재산이나 소유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

2)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동체-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 책, 2014.

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이 인간다움의 뿌리와 근거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칭의론이나 구원론에서와는 달리 이미 생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초월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함석헌의 정신적인 내재적 초월의식(씨울 사상)은 그 씨울을 네그리 등이 강조한 몸과 신체의 근거(氣)로도 본다는 점에서 그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대로 보다 '정신적인'(理) 요소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신앙과 영성과 관련해 함석헌 사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신앙과 영성이 지금까지의 인습적인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서의 배타적이고 저 세상적인 초월 이해를 넘어서 보다 더 보편적이고 이 세상적인 내재적 초월과 영성 이해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신앙과 영성이 처해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함석헌 씨울 사상이 가지는 내재적 초월성이 어떻게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회나 종교적 영역을 뛰어넘어서 범사회적으로 정치사회적 파급력을 갖는가를 살펴보는 일이고, 또한 그의 사상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적, 문화적, 생태학적 함의를 살펴보는 일이다.

2. 함석헌 사상의 유교적 뿌리: 어린 시절과 성장기의 가족적 삶

일반적으로 함석헌 선생은 한국 개신교 사상가로 알려져 있고, 주로 도교와 많이 관계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그는 매우 유교적인 사상가이다.³⁾ 특히 그가 스승 유영모(1890-1981)선생으로부터 이어 받아서 전개시킨 씨울 사상은 바로 유교적 인(仁)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적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교의 영성은 보통 종교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3) 여기서부터는 필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 "인(仁)의 사도 함석헌 사상의 유교적 뿌리에 대하여", 『양명학』 제33호, 2012.12, 한국양명학회, 291-329을 축약하고 보완하여 정리한 글임을 밝힌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내재적인 일(정치, 문화, 사회, 교육, 예술 등) 가운데서 궁극과 초월(道/聖)을 찾는 추구이다. 그렇기 때문에(聖人之道, 下學而上達, 極高明而道中庸) 함석헌 사상이 가지는 내재적 초월성의 의미는 그가 어떻게 한국 전통의 유교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를 살펴보는 일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다.

『함석헌 다시 읽기』라는 일종의 명문 선집(anthology)을 통해서 그 삶과 사상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역사학자 노명식 교수에 따르면 함 선생은 자서전을 쓰지 않았다. 그 스스로가 자신은 자랑스러운 자서전이냐 회고록은 커녕 부끄러운 고백문조차도 쓸 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⁴⁾ 그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이 훨씬 강했던 것 같다. 그렇게 늠름하고 용기 있는 선구자의 모습과는 달리 '사양지심'(辭讓之心)도 많았으며, 항상 칼날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지체 없이 나누어 판단하며 나가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발길에 채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갖지 못한 지극히 소박하고 소심한 범부의 모습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자(字)나 호(號)를 생각할 때 일본사람들이 '바보새'라고 하는 '신천옹'(信天翁)이 잘 들어맞는다고도 했고,⁵⁾ 자신의 생애에 대한 판단으로서 '동발목'이나 '나는 실패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⁶⁾ 이러한 모든 모습이 그의 인격에서의 유교적 뿌리를 근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오천 여년의 한민족의 역사를 한 마디로 '고난'의 역사로 보는 함 선생이 유교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잘 이해할 만하다. 그는 한민족의 출발을 만주지역 등의 서북으로 보면서도 유교가 단지 중원으로부터의 외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거의 보지

4) 노명식, 『함석헌 다시 읽기』, 5쪽; 원출처는 함석헌 선생님이 1959년에 쓰신 "물 아래서 올라와서"라는 글이다.

5) 함석헌, "나의 인생 노트", 1973, 같은 책, 31쪽.

6)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어서1", 1970, 같은 책, 135쪽.

않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그가 사머니즘이나 유교, 불교 등의 우리 전통 종교들에 대해서 가하는 핵심비판은 그것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심각성이 덜하며,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대 난점은 제 종교를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⁷⁾ 그는 우리나라 불교뿐 아니라 유교의 핵심 오류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찾으려 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인생은 목적운동’이고 ‘생명의 근본 원리는 스스로 함’인데,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한 개인에게나 민족에게서 삶의 ‘이상’(理想)과 ‘뜻’을 찾고 가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의 세계 제 종교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 뜻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함석헌 사상의 유교적 뿌리는 그의 유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서보다는 그의 어린 시절의 삶의 내러티브,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그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고 있는 언어와 개념들에서 더 확실히 찾을 수 있다.

평안북도 용천군의 외진 바닷가에서 태어난 함 선생은 어린 시절에 『천자』(千字)와 『명심보감』을 배웠고, 그가 다니던 삼천재(三遷齋) 서당이 사립 기독교 소학교(德一學校)로 변했다 하더라도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은 없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참 좋다’고 생각한 것은 글이 써져 있는 종이로 코를 풀거나 밑을 닦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면서 어린 시절에 일종의 신성한 권위의 존재를 가르쳐준 것이고, 또한 당시 글자를 쓰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반자불성(半字不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었다고 한다.

함 선생은 “나의 어머니”라는 글에서 자신의 어머니 김형도(金亨道)는 50이 될 때까지 글자는 한 자도 몰랐지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맨 먼저 느끼는 것은 “끊임없이 올라가자는’ 뜻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평북 용천의 가난한 소작농의 외아들과 결혼해서 7남매를 낳아 2남 3녀를 키우는 동안 ‘물 아랫놈들’이라는 멸시를 받는 감탕물 먹는 바닷가에서 살았지만

7)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함석헌전집1, 한길사 1986 제11권, 94쪽.

그녀는 ‘인간다운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오려 한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다고 한다.⁸⁾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그와는 달리 자신의 부모는 당시 온 동리가 다 믿는데도 교회에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두 분이 다 그저 남 따라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도 자주적이었고 이성적(理性的)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그의 어머니가 ‘이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미신 많던 시절에 우리 집에는 귀신 사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함 선생은 회고한다.⁹⁾

함석헌은 자신의 부모님을 ‘공’(公)에 대한 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라고 쓰고 있다. 소작농 출신의 한의사였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양심이 아주 날카로운 분’으로서 말년에는 명의로 소문이 나서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못쓴다고 한 분이였다. 어머니는 본래 아주 인자해서 그는 한 번도 억울한 꾸중을 듣거나 매를 맞거나 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7,8살 때인가 만아들의 특권의식으로 원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채마 넝쿨의 오이를 바로 밭의 여동생이 따먹자 횡포를 부리는 그에게 “애, 그건 사람이 아니냐?”라고 ‘부드럽고 미는 듯하면서도 단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적고 있다.

함 선생이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인(仁)의 뿌리를 경험한 것처럼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험을 털어놓는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함 선생은 여러 진한 실존적 경험을 겪는데, 고향에서 아들의 생사 여부를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평소의 그 모습에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간절한 편지를 보냈다. 자신의 아버지야말로 전형적인 ‘유교식의 군자’로서 인자한 분이긴 했지만 평소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런 아버지가 “네가 돌아오면 석헌아, 하고 쓸어안을 터이니” 라는 표현을 쓰면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보내자 그는 사람들은 동경대지진에서 땅에서 불길이

8) 함석헌, “나의 어머니”, 노명식 지음, 같은 책, 50-52쪽.

9) 같은 글, 53쪽.

치솟는 것을 경험했지만, 자신은 “도덕주의의 지각이 터지고 혼이 지심(地心)에서 폭발돼 나오는 인애(仁愛)의 불길에 내 몸이 타버렸다”고 고백한다.¹⁰⁾ 그는 당시 지진이 나자 평소의 일본인들이 어처구니없게 미쳐서 ‘조선놈 사냥’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운 것은 땅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흔들린 것이었다고 말한다. 일본 민중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본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불길’이었고, 그래서 그 때 젊은 마음(24세)에도 그들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업신여기고 싶었다’고 고백한다.¹¹⁾

이처럼 함 선생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까운 삶의 반경 속에서 ‘인간성’(仁)의 깊은 체험을 하였는지를 들려주고 있다. 이것을 나는 그가 후에 더욱 전개시킬 ‘생명’ 사상이나 ‘씨울’ 사상 등의 뿌리가 유교적으로 놓여진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인(仁)과 씨울-함석헌의 신앙과 믿음

함 선생은 1970년 고희(古稀)에 이르는 나이에 『씨울의 소리』를 창간하면서 “나는 씨울에 미쳤습니다”라고 하였다.¹²⁾ 물론 이 ‘씨울’이라는 단어는 맨 처음 그의 스승 유명모 선생이 『대학』(大學)의 ‘민’(民)을 해석하면서 쓰신 단어였다고 밝히지만, 앞에서도 보았듯이 함 선생은 “나는 씨울 사상을 부르짖고, 스스로 타고난 민주주의자라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밑바닥의 반석을 어머니가 놓아주셨다고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¹³⁾ 앞에서 이야기한 1923년의 관동대지진 사건에서 당시 동경 시내 우에노 공원의 “시즈노비 못가(不忍池畔)에서 언제 덮칠지 모르는 하늘까지 닿은 불길을 피해서 밤새 피신해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에도 밤새도록 일어나는 억만 가지 선과 악의 불길과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틀

10) 함석헌, “내가 겪은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1973”, 같은 책, 192쪽.

11) 같은 글, 195쪽.

12) 함석헌, “나는 왜 『씨울의 소리』를 내나”, 같은 책, 657쪽.

13) 함석헌, “나의 어머니”, 같은 책, 56쪽.

날 아침 하늘 위에 먼동이 떠오자 그 지옥에서 놓여난 느낌과 함께 ‘터진 땅 밑에서 무슨 새싹이 뼈죽이 올라오는 것 같음을 느끼며’ 그의 양심은 아무도 알아 듣지 못하는 작은 노래를 부르며 피난민 사이를 빠져나왔다고 고백한다.¹⁴⁾ 함 선생의 생애에서 이 사건은 매우 깊은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는데, 나는 여기서 함 선생이 온갖 악과 반생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존재와 생명의 근원적 뿌리를 경험한 것이었다고 보며, 그의 씨울 사상의 근간이 여기서 놓여졌다고 이해한다.¹⁵⁾

주희의 『맹자집주』에 따르면 “인자인야”(仁者人也)라고 한 『중용』(中庸)에 이어서 “인야자인야”(仁也者人也)라고 한 맹자는 “인(仁)은 인간의 마음(人心)이고, 의(義)는 인간의 길(人路)”이라고 하였는데, 이 맹자의 말에 대해서 정자(程子)는 인간의 마음은 ‘곡식의 씨앗(穀種)과 같고, 거기서 인(仁)은 그 씨앗을 싹틔우는 힘, 씨앗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살리는’ 성질과 원리(生之性/生之理)라고 설명하였다.¹⁶⁾

함 선생도 그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의 첫머리를 “사람의 살림은 뿌리가 있어야 한다”를 말로 시작한다. 그는 이 말은 인간의 삶을 ‘나무’에 비유해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비유만이 아닌 것은 그의 범우주론적 진화론적 생명관이 ‘나무’와 ‘짐승’과 ‘인간’을 모두 한 뿌리에서의 생명적 출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면서 그는 “근본은 한 가지 바탈, 날자는 것이다”라고 밝히는데, 이렇게 그가 ‘한’ 혹은 ‘얼’, ‘알’로 표현하는 생명의 뿌리는 ‘땅에서 나온 것, 난 것’(나무)과 ‘기는 것’(김/짐승)과 ‘나는 것’(정신/자유)을 모두 포괄하는 우주적 생명의 근본으로 이해된다. 그는 말하기를,

14) 함석헌, “내가 겪은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1973”, 같은 책, 182쪽.

15) 이은선, “왕양명의 ‘良知’와 함석헌의 ‘씨울’-생물권정치학 시대에서의 존재사건”, 『양명학』, 제35호 2013, 한국양명학회, 16쪽.

16) 『맹자』 告子 上 11. “孟子曰 仁人心也, 義人路也. 仁者 心之德, 程子所謂心如穀種, 仁則其生之性 是也.”

17)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25-26쪽.

“공자의 생각으로 하면 ‘인’은 곧 우주 인생의 근본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나 ‘자연’도 이것일 것이요, 인도에서 말하는 ‘브라마만’ ‘아트만’ 및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 ‘로고스’도 이것일 것이다. 그것을 유교식으로 말한 것이 ‘인’이다. ‘인’은 식물에 있어서 하면 씨요, 알짚이요, 동물에서 하면 활동하는 생명력이요, 사람에게 하면 그 정신적 바탕이다. 그래 복숭아 씨를 ‘도인’(桃仁)이라 하고, 팔다리 못 쓰는 것을 ‘불인(不仁)하다 하고, 맹자가 ‘인’을 설명하면 ‘인’은 ‘인야’(人也)라 한다. ‘인’은 사람의 본 바탕이다.”¹⁸⁾

함 선생은 “사람은 정신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생(生)은 명(命)’인 것을 지적한다.¹⁹⁾ 따라서 그 명(命)과 까닭을 알게 되면 삶에서 ‘힘’을 얻게 된다고 강조한다. “까닭이 곧 힘”이고, “생명의 근본 원리는 스스로 힘”으로 보기 때문이다.²⁰⁾ 그래서 그는 “살고 싶거든 할 일을 발견해 내어라”라고 주창하는데,²¹⁾ 이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구인성성’(求仁成聖)의 공부 방법론과 지향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과제를 천지가 마음의 씨앗으로 놓아준 仁을 구해서 그것을 만물로 확장해서 초월(聖)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과 매우 상통하는 것을 본다.²²⁾

이렇게 해서 인간 인격의 최고 상태인 ‘자유’(自由)를 “체(自)가 곧 까닭(由)”인 지경으로 풀어내는 함 선생은 그러나 거기서의 뜻과 까닭을 유교 도학자의 이법적(理法的) 이해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풀어낸다. 즉 그는 바로 생(生)의 명(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여 “생(生)은 명(命)이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삶이다.”라고 밝힌다.²³⁾ 그래서 그의 인(仁)은 ‘믿음’과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함 선생의 씨을

18) 같은 책, 88쪽.

19)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320-321쪽.

20) 같은 책, 48쪽.

21) 같은 책, 322쪽.

22) 이은선, 『한국 생물生物여성성성의 신학-종교聖·여성性·정치誠의 한몸 짜기』,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 2011, 254쪽; 이황, 『聖學十圖』〈西銘圖〉

23)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321쪽.

사상이 전통적 유교의 인(仁)사상보다 더 강력한 ‘민중’(民)과 민주주의 사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인격적 천(天)이해의 결과라고 본다.

그는 한민족의 역사에서 1919년 3·1운동이야말로 민중이 비로소 ‘사상적’으로 자각해서 ‘씨울의 역사’를 시작한 사건으로 이해한다. 당시 관립 평양고보에 다니던 자신에게뿐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이 사건은 ‘자주(自主)하는 민(民)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물론 “민중이 살았노라는 표시뿐이지 아직 완전히 깨어 힘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운동은 바로 “하나님이 말없는 민중에서 명(命)을 내리신” 씨알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²⁴⁾

그는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세 가지(민족, 신앙, 과학)를 가지고 ‘교육과 종교와 농촌’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고 한다. 그가 1928년부터 10년간 오산학교에서의 혼신을 다한 교원생활 후 다시 평양 교외 송산에서 농사학원을 맡은 일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²⁵⁾ 그는 비록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어서 교육이 그들 손으로 넘어갔지만 “선한 것이 마지막에 이기고 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교육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²⁶⁾ 남강(南崗), 도산(島山), 고당(古堂)의 세 민족적 스승을 말하면서는 공자가 “가르치지 않고 싸우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서 시작하였다.²⁷⁾ 함 선생은 8·15해방의 의미를 ‘도둑같이 온 해방’이라고 하면서 민중의 자발성과 주체성의 측면에서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거의 모두가 죽은 줄로 알았던 ‘씨울의 불사성’(不死性)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하였다.²⁸⁾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씨울 사상이 유교적 인(仁)사상으로부터 깊이 연원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일은 그가 ‘일루의 희망’이라는 서술을 통

24) 함석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노명식 지음, 같은 책, 124쪽.

25)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어서 II”, 같은 책, 222쪽.

26) 같은 글, 217쪽.

27) 함석헌, “남강(南崗), 도산(島山), 고당(古堂)”, 같은 책, 233쪽.

28) 함석헌, “내가 맞은 8·15”, 같은 책, 319쪽.

해서 한국 민족 역사의 세계사적 의미를 지시해 주는 일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역사가 도무지 희망이 없을 것 같고, 고난의 연속이고, '갈 보이었던 계집'의 역사처럼 자기 자신을 잃고 제 스스로도 자신을 업신여기는 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계사가 지시하는 역사적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 천 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적 성격'으로 영근 '착함'을 통해서라고 한다.²⁹⁾ 그 '착함'이란 맹자가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선왕(宣王)에게 왕도정치의 술로서 가르쳐준 '차마 못하는 마음'(不仁之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그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 조상이 홍안령을 넘기 전부터 가슴 속 깊이 간수하고 길러온 마음의 바탕이고, 그 후 수 천 년의 역사 속에서 '민족적 성격'으로 자리잡았다. 비록 이러한 아름다운 천성이 오랜 고난 속에서 많이 상한 점도 없지 않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일이 없고, 박해를 받지 않는 한 다른 민족을 배척한 일도 없는 역사 속에서 그것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세계사에서 한국 민족이 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으로써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즉 "세계의 불의를 담당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도덕적으로 한층 높이 올리는 일"이라고 선언한다.³⁰⁾

그는 지금 비참 속에 빠져있는 한국인들이 오히려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받기도 하지만 결코 자신의 착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 지난 천 오백여년의 시간은 그 앞의 무수한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에게서 '착함'과 '인'(仁)의 문제는 다시 '믿음'과 '신앙'과 '역설'의 문제가 되고, '씨울에 미쳤고', "죽어도 씨울은 못 놓겠다"는 함 선생의 사고는 이러한 한국인의 전통적 품성에 대한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29) 함석헌,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같은 책, 421쪽 이하;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323쪽 이하.

30)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328쪽.

4. 의(義)와 대속(代贖)-함석헌의 정치와 사회정의

함 선생의 씨울 사상이 어린 시절 가까운 삶의 환경에서의 유교적 인(仁)의 경험과 깊이 연관되어 있듯이 한국 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로서의 그의 '대속/칭의' 이해는 유교적 인(仁)과 의(義) 의식에 깊이 닿아있음을 볼 수 있다. 유교적 환경의 부정적 영향으로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함 선생은 자신의 출생지와 성장지와 관련해서 그의 의(義) 의식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평안북도 용천군의 황해 바닷가는 그에 따르면 '한국의 이방 갈릴리', '스블론, 납달리'와 같이 여러 백년을 두고 버림을 받아왔고, '상놈'이라는 차별대우와 특히 자신이 났던 마을은 더 심해서 '바닷가 감탕물 먹는 놈'이라고 해서 '머리도 못 들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그 불행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밀바다인 만큼 오히려 망국의 혼란 속에도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고, 모두가 다 상놈이기 때문에 '계급싸움'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양반 상놈이란 말은 들었지만 양반도 상놈도 보지 못했고, "이리해서 나는 타고난 민주주의자가 됐습니다."고 고백한다.³¹⁾

함 선생의 의(義) 의식은 이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유교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그렇게 오랜 동안 천대받고 소외되어왔던 고향에 기독교의 들어옴을 통해서 '큰 빛'이 들어왔다고 밝힌다. 함 선생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망국 시기에 고향 마을의 장로파 교회와 개신교 덕일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³²⁾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함 선생의 의(義) 의식은 기독교의 유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일깨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함 선생은 나중에 오산학교에서 유명모 선생님께서 배운 '참이

31)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어서I", 노명식 지음, 같은책, 138쪽.

32) 함석헌, "하나님의 발길에 채어서I", 노명식 지음, 같은책, 138-140쪽.

나 '삶'이라는 말을 잊지 못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는 ‘나’를 문제삼게 되었다”고 밝힌다.³³⁾

이 때 함 선생은 자신에게 기독교의 진수는 ‘죄에서의 해방’으로 파악했다. 그는 전통의 무속이나 불교나 유교가 일깨우는 의(義)에 대한 의식을 한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나’를 문제 삼게 하는 기독교, 불의에 대한 자각을 ‘죄’로 의식하게 하는 기독교, 양심이나 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한 것은... 약한 마음을 주신 점’라는³⁴⁾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기독교야말로 ‘(直)히 사람의 영혼에 투입하여 힘줄과 골절을 쪼개’ 유일하게 ‘자유로움’과 ‘사망에서 뛰어나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설화하였다. 그는 여기서 “왜 믿음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게 되느냐 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³⁵⁾ 기독교는 바로 “성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고, 의인은 부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의(義) 의식이 그 역설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침예한 의(義) 의식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밝힌다.³⁶⁾ 그래서 그는 이러한 진수를 가지는 기독교야말로 ‘세계의 모든 불의가 다 여기 모여 있는 조선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며, 그것은 ‘유교의 찌꺼기, 불교의 마른 뼈다귀, 동양 문명의 썩은 주검, 서양 문명의 살무사’를 모두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³⁷⁾

그러나 함 선생의 이러한 기독교 이해와 그리스도 이해는 유사한 시기에 쓰여진 또 다른 글 “무교회신앙에 대하여, 1936”에서 이미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함 선생은 이 글에서 아직 ‘그리스도론’ 자체에 대한 의문은 제기하지 않지만 바로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배제되는 당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주의는 현실주의다.”라고 비판하며 교회나 성직제도의 교권주의에 강하게 도전한다. 그는 인류는 그리스도가

33) 함석헌, “이단자가 되기까지, 1959”, 286쪽.

34) 함석헌, “내가 맞은 8·15”, 같은 책, 316쪽.

35) 함석헌, “조선에 기독교가 필요하냐”, 353쪽.

36) 함석헌, “무교회신앙과 조선, 1936”, 367쪽.

37) 같은 글, 365쪽.

오기 전에는 중개자가 필요했지만 그가 온 후에는 그러한 ‘인간적 대표자나 중개자’는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현실 교회가 다시 그러한 교권적 중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역전이요 우리 생명의 약탈’이라고 선포한다.³⁸⁾ 그에 의하면 예수가 스스로 ‘육탄’이 되어서 맞았던 세력은 불신자가 아닌 유대교 ‘교권자’였고, 이 사실을 아는 일이야말로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데 가장 긴요한 일’이라도 한다. 그는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게 된 때는 ‘사람마다 사제’가 되고 ‘권위’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함 선생은 이미 그 때에 서구 신학에서 한참 후에나 전개되는 ‘신중심주의 그리스도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신(神) 절대중심주의자다. ... 저는 하나님의 절대통치 아래 성립되는 신앙의 데모크라시를 주장한다. ...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자녀요 다 같이 사제요, 1수(一首)의 가치가 99의 가치에 비하여 경(輕)치 않다는 성서의 데모크라시는 천래(天來)의 복음이다.” 라고 말한다.³⁹⁾

함 선생의 이러한 신중심적 그리스도론은 그러나 이후 더 급진적으로 해체된다. 무교회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그리스도’ 됨에 근거해서 성서적 ‘데모크라시’의 의(義)를 칭송했던 그는 그러나 194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치무라 무교회 신앙의 배타적인 복음주의적 그리스도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한다. 이즈음에 그는 성서조선 사건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불교 경전과 노자를 읽었고, 또한 해방 후 그리고 6·25 피란 중 『바가바드기타』를 읽는 등 서구 ‘비정통’ 신앙인들에 대한 독서와 더불어 인도 종교 전통과의 조우는 ‘종교는 하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했다고 고백한다.⁴⁰⁾

이제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은 ‘역사적 인간인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대속(代贖)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하는

38) 함석헌, “무교회신앙에 대하여, 1936”, 같은 책, 383쪽.

39) 같은 글, 391쪽.

40) 함석헌, “이단자가 되기까지, 1959”, 같은 책, 298쪽.

것이였다.41) 그는 여기서 자신과 같은 ‘사색형의 인간’에게는 대속이 결코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그의 생각에는 대속은 ‘인격의 자수가 없던 노예시대에 한 말로 이해되고, ‘인격’은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한 인격에게는 대속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으로 들린다는 것이다.42) 이러한 사색은 그가 매우 강력하게 ‘역사적 예수’의 유일회적 그리스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는 “생각하다 생각하다” 자신이 내린 판단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는 ‘예수에게서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43) 그는 ‘자기중심적인 감정’과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를 대비시키고, ‘모든 체험은 반드시 이성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그가 역설의 의(義)로서 유일하게 참으로 주창했던 기독교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이성(理)과 ‘도덕’(德·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본다.

함 선생도 인용했듯이 맹자는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성(性)을 알고, 그 성(性)을 알면 하늘을 안다.”고 했다(『孟子』 「盡心上」 1). 또한 그는 우리 입이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을 공통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이치(理)와 ‘의(義)라고 했다(『孟子』 「告子上」 7). 이러한 맹자를 좋아한 함 선생은 “밑에 행함의 불을 피우지 않고 올라가는 믿음의 향내는 없다.”라고 했다.44)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고,45) “속죄의 근본 뜻은 대신에 있지 않고 ‘하나됨’에 있다.”라고 밝힌다.46) 그는 하나님이 오직 “‘착한 맘’이 하나

41) 같은 글, 299쪽.

42) 같은 글, 300쪽.

43) 같은 글, 300쪽.

44) 함석헌, “말씀모임, 1957”, 같은 책, 566쪽.

45) 함석헌, “기독교 교리에서 본 세계관, 1954”, 같은 책, 467쪽.

있을 뿐”인 한국을 ‘세기의 그리스도’로 뽑으셨다고 말하는데,⁴⁷⁾ 이것은 그의 신앙과 믿음의 방향이 점점 더 전통적, 역사적 예수 중심의 속죄론을 벗어나서 ‘인’(仁)과 씨울, ‘민중’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유교적 의(義)는 기독교적, 종교적 의(義)에 비해서 장기간의 삶의 과정 안에서 실천되는 의(義)를 중시한다. 그것은 생활적 삶을 요구하는 의(義)이고, 일회적이거나 찰나적인 전환으로서의 칭의가 아니라 덕목과 지혜와 현실 삶에서의 행위력으로서의 의(義)를 말함으로써 종교보다는 정치, 정치보다는 교육과 문화, 정치적 혁명보다는 건강한 가족적 삶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義)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함 선생님의 기독교적 대속신앙이 변하여서 씨울과 민중과 삶과 전체에 대한 믿음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교적, 맹자적 의(義)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그가 ‘농사’와 ‘교육’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한 일, 17살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 살 아래인 황득순 여사와 결혼했으나 신혼의 시간에도 잠자리에서 같이 운 적이 많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온갖 역경을 견디고 해로하여 1978년 부인의 임종을 맞이한 일, “인정으로 사는 가정에는 법 없다.”⁴⁸⁾고 말하는 것, “늙은이를 대학으로 보내고 젊은이를 일터로 보내라.”고 한 일,⁴⁹⁾ “나라 안에는 늙은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를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중시하셨지만 젊은이가 아니라 오히려 늙은이가 나라의 ‘정신적 뼈대’라고 주장하신 일, “목적은 하늘에 있으나 일은 땅에 있다.”고 밝힌 일,⁵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손을 묶고 앉는 일이 아니다. 도리어 인간으로서 활동을 힘껏 하기 위해 생사 성패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다.”라고 한 말 등이 모두 이러한 유교적, 동양적 의(義) 이해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자연과 동물의 세계와는 다른 인간적 세계의 의(義)이고 그럴

46) 같은 글, 475쪽.

47) 같은 글, 479쪽.

48) 함석헌, “한 배움”, 493쪽.

49) 같은 글, 486쪽.

50) 함석헌, “말씀 모임”, 568쪽.

때만이 인간의 문화와 삶이 지속된다는 지혜이고, 이것이 오늘날 서구 연원의 신자유주의 경제와 실리주의적 경쟁원리를 뛰어넘는 대안의 정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이고 강함이며,⁵¹⁾ 자신의 근원을 잊지 않고 시작을 기억하고 그 시작과 오래된 것을 계속 새기면서 보유했을 때 인간적 삶이 계속되고 뻗어나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함석헌 선생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대안적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본다.

5. 성(誠)과 새 시대의 새 종교-함석헌의 교육과 문화와 큰 통합

함 선생의 신앙은 그 인격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의 의식 속에 날카롭게 일깨워진 '자유'(自由, 스스로가 까닭이 됨)와 '참'에 대한 의식으로 예수의 대속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씨울'이고, '참'과 '실제'(real)이고, 내 속의 '얼'이며, 이 땅의 가난한 '민중'인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민중이 뭐냐? 씨울이 뭐냐? 곧 나다. 나대로 있는 사람이다. 모든 옷을 벗은 사람, 곧 알사람이다. 알은 실(實), 참, real이다. ... 정말 있는 것은, 알은 한 알뿐이다. 그것이 알 혹은 얼이다. 그 한 알이 이 끝에서는 나로 알려져 있고, 저 끝에선 하나님, 하늘, 브라만으로 알려져 있다. ... 알사람, 곧 난 대로 있는 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다. 그것이 민이다.⁵²⁾

이렇게 초월과 궁극의 하나님을 이 세상, 참(실제), 씨울과 나, 민중 등과 급진적으로 등가화시키는 함 선생의 '이단'적 신앙은 유교 전통의 '성'(誠)

51) 이은선, "국제화시대 한국교육의 '무한경쟁주의' 극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교육철학』 제41집, 2008.2, 214ff.

52) 함석헌, "씨알의 설움", 같은 책, 528-529쪽.

의 개념만큼 잘 드러내주는 것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용』(中庸)의 핵심 개념인 성(誠)은 이상(言)이 형상화 되어 나타난 것(成), 뜻과 이유(言)가 실현된 것(成), 또는 말이나 행위가 실제(言)와 부합되는(成) 참과 정직, 또 다른 의미로는 약속한 것이나 계획한 것(言)을 현재와 현실로 이루어내는(成) 성실성, 또는 품은 뜻(言)을 이루어내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지속성, 이와 더불어 지금 현실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본체와 알맹이(言)가 실현될(成) 때와 날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눈앞의 실제로 그리고 볼 수 있는 상상력과 창조력 등의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 나는 함석헌 선생의 삶과 신앙, 행위와 언어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기독교나 교회의 좁은 울타리를 넘고, 편협한 인간중심주의, 민족주의, 과거와 현재의 속박을 넘어서 한민족의 미래와 세계와 인류의 앞날과 이상을 말할 때 이 성(誠)의 덕이 지극하게 실현되고 실천된 모습을 본다.

함 선생이 속죄의 근본 뜻은 '대신'에 있지 않고 예수가 아들로써 그러했던 것처럼 '알아주는 맘'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다고 했다(면⁵³) 초월과 현실을 하나로 묶는 성(誠)이야말로 그 하나됨과 다름 아니다. 이 '하나됨', 다른 표현으로 하면 '참'을 지극히 실천하는 모습으로 의사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들어간 관립학교지만 3·1운동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나서 "내 양심에, 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른 만세를 오늘 다시 한번 배반하고 ... 잘못된 것이라 부인할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가지 않은 일,⁵⁴ 일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도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참이 제일이지"라는 각오로 "조선사람을 길러내자는 것"이라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은 남강 이승훈을 기리는 일, "오직 지극한 정성이라야만 능히 물건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지극한 정성이라야만 능히 물건을 움직인다"(有至誠不能動於物 有至誠能動物)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생 좋아했다는 글귀를 '지성(至誠)의 가르침으로 깊이 새

53) 함석헌, "기독교 교리에서 본 세계관", 같은 책, 475, 477쪽.

54) 함석헌, "내가 맞은 8·15", 같은 책, 310쪽.

긴 일,⁵⁵⁾ 점점 더 심해지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일본말로 가르치느니 차라리 교직을 그만 두었고, 신사참배는 물론 창씨개명에도 응하지 않은 일, 무교회도 넘어서 스스로 ‘이단자’가 되는 한이 있다 해도 “참에야 어디 딴 끝이 있으리오”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역사적 예수’의 물음을 제기하며 참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 나간 일,⁵⁶⁾ “... 내게 오는 자 참으로 오라, 영으로 오라, 자유로 오라. 맘을 다, 뜻을 다, 성품을 다, 힘을 다한 사랑으로 오라”는 “흰 손”의 시 구절이 나타내듯이 진정성 없는 값싼 대속 신앙으로 전락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한 일,⁵⁷⁾ 서슬 퍼렸던 군사 쿠데타의 주역에게 ‘의장’이나 ‘대장’이라는 명칭도 붙이지 않고 ‘박정희 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잘못과 거짓과 약속 지키지 않음을 용기 있게 꾸짖었던 일,⁵⁸⁾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의 참을 향한 인내와 지속성의 표현이라고 본다. 잘 알다시피 그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라는 연설로 표현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그의 하나님 신앙과 삶의 실천이 모두 이 성(誠, 참)의 실천이었음을 드러내주는 일이라고 여긴다.

함 선생이 이처럼 지극하게 실천한 성(誠)의 믿음은 그의 씨울 사상이 잘 보여주듯이 궁극의 하나님을 우리의 ‘속알’과 하나로 보는데서 더욱 드러난다. 맹자가 ‘적자지심(赤子之心)’으로도 표현했고, ‘덕(德)’이라는 ‘속알’, ‘변치 않는 바탈’로서의 ‘도(道)와 ‘성(性)’이 하나님을 밝히는 그는 “큰 것은 하나님이요, 큰 것은 나다. 하나님과 직접 연락된 내가 ‘한’ 곧 큰 것이요, 그 직선을 중축으로 삼으면 온 우주를 돌릴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⁵⁹⁾ 그래서 그에 따르면 ‘나와 하나님을 맞대주지 못하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 참 종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고, 나에

55) 함석헌, “남강(南崗)·도산(島山)·고당(古堂), 1959”, 같은 책, 248, 254쪽.

56) 함석헌, “대선언”, 『수평선 너머』, 함석헌 저작집 23, 326쪽.

57) 함석헌, “흰 손”, 같은 책, 426쪽.

58) 함석헌, “삼천만 앞에 울음으로 부르짖는다”, 노명식 지음, 같은 책, 630쪽.

59) 함석헌, “씨알의 설움”, 같은 책, 527쪽.

게까지 뚫리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종교가 종교’이고, “참 종교는 한 사람의 신자를 가질 뿐이다”라고 선포한다.⁶⁰⁾

그는 ‘중보’(中保) 소리 많이 하는 종교는 ‘협잡종교’라고 선포한다.⁶¹⁾ 또한 매우 강력하게 “천지간에 교황이 있다면 너다. 너 자신이다. 부처가 있다면 너다. 너 자신이다. 네가 누구를 보고 절을 하느냐? 네가 절을 하려거든 속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마는 그 대강이를 우리 민(民)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라. 우리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데,⁶²⁾ 지금으로부터 오십 년도 전(1959년)에 함 선생님이 이런 엄중한 선포와 경고로 중보자를 넘어서는, 성직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 종교의 방향을 지시하셨는데, 한국 교회와 신학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 선생은 그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의 맨 마지막을 “지성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하면서 ‘덕’(德)이란 무엇이나?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답하기를 덕이란 ‘자기 속에 전체를 체험하는 일’이라는 하였다. 자기 속에서 전체를 체험하는 일, 자기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자매와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직관,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는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좁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인류애, 온 생명이 궁극적으로 한 뜻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낳고 살리고 복돋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행위력, 남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동정심과 상상력, 나와 사회, 개인과 나라, 몸과 정신, 인간과 자연,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깊이 한 몸과 정신이므로 서로 도와주고 한계와 약점과 갈등을 싸매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공감력과 통찰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덕’이라는 의미이겠다.

한국의 6·25전쟁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의 세계’를

60) 같은 글, 527쪽.

61) 같은 글, 527쪽.

62) 같은 글, 531쪽.

향해 나가기 위한 “인류의 제단, 유엔의 제단, 민족의 연합의 제단”이 된 일로 보는 그에 따르면⁶³⁾, 지금 인류가 가장 원하는 것은 ‘새 종교’이다. 이제 인류는 개인적 성장의 시대를 넘어서 ‘전체의 시대’로 들기 시작했고,⁶⁴⁾ “이제는 도덕을 규정하는 마지막 표준에 ‘민족’이 있지 않고 ‘세계’가 있”으며, 인류 삶의 걱정은 더 이상 ‘기술적인 문명’에 있지 않고 ‘사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⁶⁵⁾ 하지만 그는 분명히 밝히기를 “미래의 종교는 노력의 종교일 것이다”라고 했다.⁶⁶⁾ 즉 그는 미래의 종교는 지금까지 인류가 서로 다른 문명으로 나뉘어져서 각자 일구어왔던 어느 한 종교, 특히 세계를 모두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서구 문명의 ‘기독교’에 의해서 대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의 종교, 동양의 종교, ‘인’(仁)과 ‘의’(義)를 ‘성’(誠)으로 종합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민족의 씨알의 종교를 지시하는 것이다.

인류 미래의 새 종교를 그리기 위해서 인류 종교사를 크게 세 단계의 전개로 살피는 그는 인류가 ‘맹목적 의지’와 ‘감정’의 종교 시대를 거쳐 ‘이지’(理智)의 종교시대로 들어섰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인류는 그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넓게 제 사는 세계의 테두리와 역사가 나가는 방향을 내다보게 되었다. 정신화, 영화(靈化)라는 데로 그 지침이 결정적으로 놓여있다”라고 하였고, “앞날의 종교는 점점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되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래의 인간은 결과보다 노력의 과정 그것을 존중하고 법열보다는 참을 찾는다. ... 무서워서 믿는 것도 아니요, 상을 위해 믿는 것도 아니다. 믿는 것이 본분이어서, 인생의 본 면목이어서 믿을 뿐이다. 고로 믿음은 곧 그대로 생활인 것이다.”⁶⁷⁾ 라고 선언한다.

함 선생이 제안한 이(理)와 신앙이 함께 연결되고, 한없이 정치적이고 교육적이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온 세계를 영(靈)과 정신을 향한 ‘한

63)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299쪽.

64) 함석헌, “내가 맞은 8·15”, 노명식 지음, 같은 책, 320쪽.

65) 함석헌, “5·16을 어떻게 볼까”, 같은 책, 623쪽.

66) 함석헌, “새 시대의 종교”, 『새 시대의 종교』, 함석헌 저작집 14, 74쪽.

67) 같은 글, 74, 75쪽.

개 산 생명운동'으로 보는 '생명사관'(生命史觀)의 종교는 앞으로 큰 하나 됨과 전체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는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의 삶과 사고에서는 인(仁)과 의(義)가 성(誠)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의 종교와 정치와 교육은 한 배움 안에 모두 녹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정으로 한국이 배출한 큰 선비, 진정한 대학인, '통유'(通儒)와 '진유'(眞儒)였다. 그는 그런 찬란하고 높고 깊은 통찰력과 비전으로 참 믿음은 스스로 믿음이고, 참 종교는 정치와 교육과 농사와 문화와 예술과 나누어질 수 없음을 가르쳐주었다. "사랑은 개체에 서 전체를 보는 일이다."⁶⁸⁾라고 선포하신다. ●

68)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41쪽.